

오서산 산행기

2005년 2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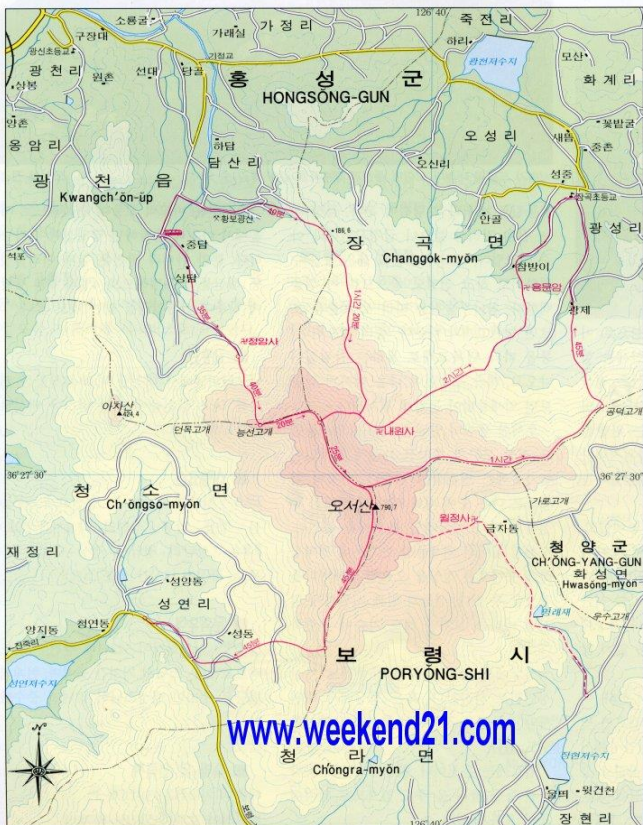
2005년 2월 5일부터 13일까지 7일과 11일이 샌드위치 날 이지만, 실질적으로 9일간의 설날 연휴였다. 이 소중한 기간을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 갑사 부근에 있는 정신수련원에서 도를 닦아볼까, 김해 다보선원으로 가서 참선 입문을 해볼까 하다가, 그냥 집에서 무위도식하며 담배를 확실히 끊는 기간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집에 눌러앉았다.

딸 진이는 남자 친구 '차진호' 라는 애가 데려다 주는 차로 5일 집에 도착하였다. 장차 사위 후보가 집을 방문한다고 해서 아내와 나는 약간 긴장한 상태에서 그 애를 인터뷰하였다. 아니 우리가 인터뷰 당했는지도 모른다. 아들 지완이는 8일 오후에 열차 편으로 오기로 하였으나 기차표 예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오지 못했다. 모처럼 전 가족이 모이나 싶었는데 서운한 마음이다.

연휴 처음에는 딸과 같이 갈 수 있는 집 부근의 계룡산 자락을 매일 한•두 시간씩 산행하였다. 딸도 돌아가고, 연휴가 끝나간다는 아쉬움, 집에 오래 있어보니 아내와 잦은 마찰 때문에 무력한 기분이 든다.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원거리 등산을 계획한다. 아산에 위치하는 광덕산은 전에 한번 등산하였으나 광덕사 쪽에서 오르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던 산이기에 이번에 다시 다녀오기로 결정하고 집을 나섰다. 전과 같이 광덕사 입구를 찾지 못한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도를 사야 된다는 나의 주장에 마지못해 동의하는 아내의 불멘 모습이 못마땅하여 나의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금단의 영향 때문이라고 아내에게 설명했지만 나의 기분을 무시하는 아내의 처사가 더욱 못마땅하다.

공주에서 지도를 사고 광덕사를 찾아 나섰지만 도중에 헛갈리자 아내가 자기 방식대로 광덕사로 전화해서 찾아 가겠다고 한다. 운전대를 넘겨줬다. 아내는 별 무리 없이 광덕사를 찾아갔다. 등반대장 권위를 상실한 나의 심기는 불편해질 대로 불편해져 등반을 할 기분이 나지 않았다. 광덕사 앞 식당에서 맛없는 청국장으로 요기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등반을 시작하였다. 등반 도중에 등반로 선택 문제로 아내가 다시 나의 심기를 자극하여 되돌아서서는 바람에 결국 등반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숨 자고 난 후 심신이 안정되자, 모든 것이 나의 소인배적인 처사에서 나온 것이라는 후회 감정이 절실하다. 나는 아내에게 내일 다시 한번 광덕산 등산을 시도하자는 제의를 했다. 아내 역시 심각한 정신적인 타격을 받은 모양이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대상 산을 오서산으로 하지고 했다. 전번 등반 때 좋은 이미지를 가졌기에 나도 동의 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우리는 다시 한번 보령 오서산을 등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아침 일찍부터 나는 어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지도를 펴놓고 indoor climbing을 몇 번이고 반복한다. 아내는 음식 준비를 하고, 일오(우리 집 귀염둥이 세퍼트, 50Kg 왕등치)는 등산 분위기를 눈치채고 벌써부터 흥분하여 설친다. 8시 30분 준비를 마치고, 오서산을 향해 출발이다. 일오는 언제부터인지 케러밴(우리 승합차)앞자리 가운데가 놈의 지정석이 되었다. 어릴 적에는 차가 움직이면 바닥에 바짝 엎드리던 놈이 이제는 버젓이 앉아 차창 밖 경치를 유

유히 즐긴다. 기분을 북돋기 위해 CD 음악을 틀어본다. "산모퉁이 바로 돌아 송학사 있거늘....." 절절한 삶의 의미가 가슴에 와 닿는다.

공주를 지나, 36번 도로, 신정리 도착, 910번 도로를 거쳐 오서산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예정된 등반로는 성연리에서 출발하여 내원사 길을 따라 주 능선에 이르고 남쪽 능선을 따라 오서산 정상에 오른다. 정상에서 점심을 하고 남서 능선의 마루금을 따라 910번 도로에 이르고, 그 길을 따라 원점에 이르는 약 10km 거리의 원점회기 코스다. 성연리를 찾아가는 도중, 아내는 오서산 휴양림 이정표를 발견하자 그쪽으로 가고 싶은 눈치이나 어제 일을 상기하면서 자제하는 모습이다. 계획대로 성연리 마을입구에 도착하였다. 와서 보니 전에 이곳에서부터 오서산 등반을 시작한 기억이 난다. 새로운 코스를 원했던 아내를 달래면서 새로 생긴 널따란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등반을 준비한다. 마침 관광버스 하나가 도착하고 많은 등산객들이 산행을 준비한다. 신바람 난 일오를 앞세우고 오서산 임도로 접어든다.

산새가 서해안 지역의 제일봉답게 웅장하고 경관 또한 매우 수려하다. 병풍처럼 펼쳐진 오서산 주능이 서향이라 못내 아쉽다. 만일 남향으로 펼쳐진 병풍 모양이라면 노후를 의지할 집터를 찾아 볼만하다는 대화를 나누면서 느긋한 발걸음을 즐긴다. 햇살이 겨울 날씨답지 않게 따사롭다.

주변의 풍광을 즐기면서 임도 따라 걷다 보니 갈림길이 나온다. 별 생각 없이 위쪽으로 향하는 길로 접어든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분주한 일오를 통제하느라 등반코스 확인을 잠시 등한하다 보니 길을 잘못 들었다. 우리가 선택한 코스는 내원사로 넘어가는 제3코스가 아니고 제1코스이며 종전에 등반한 코스와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 겸연쩍어하는 나에게 아내는 독설 일침을 가한다. "계획은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메!"

임도에서 주능선으로 오르는 힘든 코스를 30여분 오르다 보니 오서산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주능선에서는 가끔 등산객들과 만나게 되어 일오의 단속이 절실하다. 5m 이상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가다가 등산객을 만나면 즉시 일오를 안치고 등산객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그 놈 참 잘 생겼다" 대부분의 등산객들이 일오에게 던지는 인사말이다. 예전에는 이 말을 들으면 일오가 대견스럽고 새삼 소중하게 여겨졌으나 요즘은 동물인 일오를 100% 신뢰할 수 없어 등산객이 놀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오서산은 역사로 유명하다. 등산 시작 후 2시간 가량 지나 정상 부근에 도착하니 역사밭 사이에 등산객들이 몇 팀 둘러앉아 점심을 먹고 있다. 우리도 그 부근에서 점심을 먹기로 작정하고 등산로를 벗어나 양지바른 곳을 찾아 자리를 잡는다. 아내가 준비한 정종을 한잔씩 주고 받으니 온몸으로 열기가 파르르 파장을 일으키며 퍼져간다. 간소한 점심이라 셋이서 공평하게 나눠먹었다. 약간 부족한 것은 하산 후 불고기 파티로 대신하기로 하고 정상을 향해 출발한다. 한번 와 본 산이라 눈익지만 역시 오서산 정상에서의 정경은 매우 훌륭하다. 전에 등산한 때도 겨울철이라 풍광이 지금과 유사하다. 다음 등반은 봄철에 휴양림 코스로 하자고 다짐하며 기념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꺼냈다. 건전지도 다 닳았고 메모리 여분도 없다. 일오랑 셋이서 사진을 찍으려던 아내의 실망한 모습에 머리가 조아려진다. 아! 나도 이런 내 자신이 싫다.

멀리 북쪽 능선 따라 등반로가 시원하게 연결되었고 마지막 봉우리에는 정자가 우뚝 서있다. 계획은 정상에서 남쪽 능선을 따라 하산할 계획이었으나 정반대 방향으로 하산한다. 오후 1시이다. 기죽은 내가 안되 보였는지 아내가 위로 말을 건 낸다. 하산 길은 북사면이라 구간구간이 결빙 상태이다. 일오를 통제하면서, 나 자신은 미끄러지지 않게 하면서, 아내의 눈치를 살피면서 하산 길을 서둘렀다. 정자에서 정암사에 이르는 길은 경사가 심해 아이젠 생각이 절실하다. 아이젠은 차 안에 있다. 별다른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수 밖에...

하산 시작 후 2시간 가까이 엉금엉금 기면서 내려오다 보니 정암사이다. 고생은 심했지만 그런대로 아내도 만족해 하는 눈치다. 이제 우리 차가 있는 곳까지 임도를 따라 산책 기분으로 걸으면 될 것 같다. 지도상에서 확인 해보니 8-9km 정도이다. 무심코 내려오다 보니 상담리 주차장 쪽이다. 광천으로 나가는 길이라 우리 차가 있는 곳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지도를 놓고 확인해보니 아차산 쪽으로 난 샛길을 놓쳤다. 아내에게 또 한방 얻어 맞는다. 다시 되돌아 코스를 잡아 던목고개 길로 접어든다. 경사도 그리 심하지 않고 주위 경치도 좋고 한적하여 일오랑 산책 코스로 그만이다. 우측으로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2시간 가량 산책 코스를 마치고 출발 지점인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에 오르니 오후 5시이다. 얼마만의 장거리 산행인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운 몸과 달리 나의 영혼은 저녁 하늘로 날아오른다. 아내도 다시 태어난 듯 신선하다.

귀가 길에 청양에 들러 목욕하고, 유명하다는 청양 소고기 한 근과 일오를 위해 돼지고기 반 근을 사서 집에 도착하니 오후 9시 30분이다. 아내와 난 적당히 구운 등심 한 접시와 포도주 잔을 앞에 두고 식탁에 마주 앉았다. 식탁 옆에 다소곳이 앉아 있지만 안절부절 못하면서 자기 몫의 돼지고기가 익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가련한 일오의 눈동자를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건배를 위한 크리스탈 포도주잔의 울림은 아내와 나의 영혼의 소리와 공명되어 조출한 우리 만찬 자리를 가득 채운다.